



효자5동 지사협, 제스트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일례)는 지난 22일 효자5동 착한가게 41호점 제스트(대표 이희용)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제스트는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스포츠센터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희용 대표는 "회원들과 함께 아어온 나눔 활동을 계기로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 앞으로 도 지역과 함께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일례 위원장은 "착한가게 가입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희용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후원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정 효자5동장은 "착한가게 가입에 동참해 주신 제스트에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공적 지원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내 복지문제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착한가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월 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한다. 가입 시 현관 부착을 통한 홍보 효과와 함께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권희성 기자



남원소방서 "심정지 환자 생존 회복률 향상"

남원소방서는 구급대원 전문자격자 특별교육 및 남원의료원 등 지역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심정지 환자 생존 회복률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자발순환 회복률(ROSC)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중증이나 이후 자발 순환을 통해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남원지역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3년 4.2%, 2024년 12.1%, 2025년 20.5%로 3년 동안 향상되었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이 성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구급대원의 지속적인 훈련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남원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참여가 이런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하엔지니어링,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는 (주)진하엔지니어링(대표 윤은수)이 23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10년간 기탁을 이어갈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기적인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윤은수 (주)진하엔지니어링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장기기에 걸쳐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정해 주신 (주)진하엔지니어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귀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진하엔지니어링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으며 올해도 2,000만원을 기탁하면서 총 5,000만원 기탁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

'2주 이상 기침하면 무료로 결핵검진'

남원시, 건강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추진

남원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026년 건강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법정 감염병으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발열, 체중 감소 등이 주요 증상으로, 고령층의 경우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단순히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검진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기본적으로 이동식 흉부 X-ray 촬영 방식으로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신속히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가래(객담) 검사 등 추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과 감염병관리팀(063-620-5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정희연 감염병관리팀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결핵검진'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결핵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2026년 첫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정읍시가 지난 22일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행정재산 용도 폐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공무원과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촉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위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려 사항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업의 취지에 맞춰 토지 및 건물 취득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를 마친 안건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은 오는 2월 개최하는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되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반영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만큼 관리와 처분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심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실시

임실군보건소의료원이 지난 15일 관촌면을 시작으로 30일까지 12일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진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1차 건강검진 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 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및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 검사 등이다. 이동건강검진 시 국가 임(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등)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업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검진은 무료로 실시되며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동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검진 전날부터 8시간 공복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동검진 기간을 놓치더라도 전국 검진 기관에서 연중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대곤 보건소장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전략품목 중심 맞춤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북농협, 원예농산물 수출 촉진 워킹그룹 회의

전북농협이 전북 원예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나섰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마케팅팀과 농협·조공법인 수출 실무자, 수출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원예농산물 수출촉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전북 농산물 수출 실적과 2025년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의 방향과 품목별 해외시장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수출 유망 품목 지원 수출 농가 현장 컨설팅, 농가 조직화 교육, 해외 판촉행사 지원 등을 통해 전북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배, 포도, 딸기, 복숭아, 고구마 등 전북의 5대 수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8개국에서 18차례 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회의에서는 무주 여름딸기 수출 성과 사례를 공유한 데 이어, 베트남과 대만 등남아 등 주요 수출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가별 수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



들은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전북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훈 전북농협 본부장은 "수출을 통한 농산물 판로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해외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발굴해 전북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캠페인 전개

임직원 자발적 동참 독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며 지역 상생에 힘을 보탰다.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은 지난 23일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아우름 캠퍼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상생경영을 실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준원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과 부서장, 지점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매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꾸준히 독려해 왔으며, 이번 캠페인

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부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요와 기부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박준원 은행장은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임직원의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각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돼 지역 발전 사업과 특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된다. /오상근 기자

진안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구성

진안군 백운면은 지난 22일 제13기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갖고, 임원 선출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제13기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위원장 박순서 부위원장 김중현 간사에는 박길수 위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분과별로는 자치운영분과장 김광식, 문화교육분과장 신명숙, 지역복지분과장 한연이 위원이 맡게 됐다.

임원 선출 후에는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주민 참여 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위원들은 주민자치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백운면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서 위원장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3기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맞춤형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백운면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

장수군 번암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 제11기 주민자치위원 위촉식을 열고 새 출발을 일렷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 25명과 교문 5명

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임원진 선출과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온 이항숙 위원장이 제11기 위원장으로 재선출돼 연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항숙 위원장은 "지난 10기 동안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위원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번암면의 활기찬 변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중현 면장은 "지역 사회의 리더로 활동할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주민자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기 번암면 주민자치위는 앞으로 2년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지역 축제 활성화, 일손 돕기 봉사 활동 등 현장 중심의 주민 참여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이 확대되고 공동체 결속력이 강화돼, 지역 활력 제고와 생활밀착형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수지면 의용소방대, 경로당에 만두 후원

남원시 수지면 관계자는 지난 22일, 면 의용소방대(대표 오정우, 박현민)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만두 19상자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평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동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측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준비했다"고 전했다.

소명호 수지면장은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의용소방대 측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